

크눔 써바이 찢 나ㅎ 다엘 반 쭈웁 록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3월 아띠 플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간달 도착	-프로그램 오티 -청소 - '비싸이' 생일파티	-(장보기)HIM 마트 -문화생활	-한인 교회가기 -썩치웃과의 첫만남
7	8	9	10	11	12	13
-프로그램 오티 -여성의 날 행사	-카페가기 -러키마트 장보기 -시장(프싸따프마의)	-VDP, LDP 오티 -여행 계획하기	-LDP 교육받기 -함께 운동하기 -막힌 물 뚫기(어디)	-삼성 병언 -러키마트 장보기	-삼성병언 -이언몰 -메콩강 둘러보기 -야시장 둘러보기	-한인 교회가기 -첫 청년보와의 모임 -마을 주민들 만나기 (+떡볶이)
14: No wi-fi	15	16	17	18	19	20
-삼성병언 -한 달 계획 세우기 -팀 유니폼 맞추기 -와이파이 없는 날	-영어, 한국어 커리큘럼 짜기 -LDP 활동 -오늘이 오늘이	-LDP 활동 -설문조사지 만들기 -여행 계획 짜기 -우스들과의 시간	-영어, 한국어 커리큘럼 짜기 -LDP 활동 -여행 계획 짜기	-영어, 한국어 커리큘럼 짜기 -LDP 활동 -여행 계획 짜기	-집에서 쓰기 -사진 정리 -보고서 쓰기 -오늘이 오늘이	-한인 교회 가기 -떡볶음 시장가기
21: No wi-fi	22	23	24	25	26	27
-영어, 한국어 자료 -포스터 붙이기	-영어, 한국어 자료 -LDP 활동	-영어, 한국어 자료 -LDP 활동	-영어, 한국어 자료 -페이스페인팅 준비 -LDP 활동	-마을 아이들 수업 (페이스페인팅) -LDP 활동	-집에서 쓰기 -사진 정리 -보고서 쓰기 -모래 빼기	-한인 교회 가기
			수업신청 받기			
28: No wi-fi	29	30	31	-크메리어 공부하기(하루 5분: 오후 1시 45분-8시) -청소시간: 오후 8시-8시 15분 -점심시간: 오후 12시-2시 -우스들과의 시간: 일주일에 3번		
-영어 수업 준비 -아띠 타임(영어)	-한국어 수업준비 -아띠 타임(한국어)	-영어 수업 준비 -아띠 타임(영어)	-한국어 수업준비 -아띠 타임(한국어)			
		아띠데이 - 코칭클래스 준비				

목차

1. 크놈 चु모...(아띠들 소개)
2. 나일원 따끄돌(따끄돌을 소개합니다.)
3. 아띠 's 뿌어막(친구를 소개합니다.)
4. 활동(YDP, CDP)
5. 생활
 - a. 에세이





Neak (제민), 23(25)

#더위뭇참음 #현지인입맛 #유비 ♡ #다이어트 #엇째크마에떼

Neak은 크메르어로 '용'이라는 뜻이다. 덩다덩다진짜덩다. 이제는 달콤한 망고보다 시고 딱딱한 그린망고에 칠리소금 찍어먹는게 내취향. 크메르어 못알아먹는다. 현지인 입맛이라 그런지 살을 빼야하는데 더 찌다.



Tida: 더워도 게으러지지 말자!!!!!!!

ㄴ



Neak: 누가보면 내가 게으른줄 알겠다 ㅋ



Dara: 살 더 찌지나 말자...



Saophea: 다치지 말자.조심조심!!

크롬 츄모...

Tida (다희), 22(23)

#레드성애자 #미니언즈 #하하하하 #잔소리

저의 이름은 'Tida'예요. 이름의 뜻은 '귀여운아이'이구요. 팀원들의 말로는 제가 빨간색을 정말 좋아한대요. 뭐,,,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은 팀원들이 뽑아준 사진인데 미니언즈 닮았대요.
#하하하하 그리고 팀원들 중에 잔소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Neak: 대들지말고 말좀 들어라

└



Tida: 바른 말만 하는거지뭐 ㅋㅋㅋ



Dara: 머리며 옷이며 다 빨강... ㄷ ㄷ



Saophea: 고생하는 내 룸메이트, 썬썬!(힘내) 장 선생님,
사투리 늘어간디 ㅎㅎ



크롬 창모...



Dara(지환) , 20(21)

#팀의막내 #1일1뚜땀꼬뜨거(연유커피) #앙캄보띠

Dara는 '별'을 뜻함. 뚜땀꼬뜨거 없었으면 진작 집에 갔을텐데...



Tida: 내가 너 인생 샷 많이 찍어줌

↳



Dara: ㄱ



Saophea: 심심한 거 못 참는 철벽남, 다라



Neak: 아침잠 더럽게 많네

크롬 츄모...

Saophea (주혜), 22(23)

#남바이하으이(밥먹었어?) #나만의사투리 #꾸이띠우(쌀국수)

#크메르어잘할꺼야 #엉뚱 #뽀바른의결수용 #어디서나잠ok

쑤어쓰다이!(안녕하세요) Saophea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예요. 나만의 독특한 말로 팀원들은 어리둥절해서 웃어요 히히.

여기 와서 새로운 나를 많이 발견하고 또 알아갑니다. 쑤쑤!(힘내자)



Neak: 뽀발리먹고 마시고, 어디서나 잘자는건(특히 툯툯) 니가 뽀

ㄴ



Saophea: 인정



Tida: 엉뚱한 너의 말 덕분에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ㅋㅋㅋ
나에게 웃음을 더해줘서 고마워 ㅋㅋㅋ



Dara: 남바이하으이 메크로





나이원
같은 따끈따끈

RaomAtti



*나이원: 소개합니다.





‘우리마을, 우리이웃’

우리가 살게 된 ‘따끄돌’마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려볼까?”

“좋아, 그럼 우리 떡볶이를 만들어드리자”

.
. .



“근데 사람들이 진짜 열려있다.”

“맞아, 사람들이 엄청 잘 웃어 주는 것 같아.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오늘 정말 재밌었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의 친구인
쑤치을(socheat)이 주말 오후에 갑
자기 우리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서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보
냈다. 기타를 칠 줄 안다며 집에가서
기타를 가져와 우리에게 노래 부르며
기타를 쳐주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감
미로워서 심쿵했다. 자신이 치던 기타
를 우리에게 건네며 쳐보라고 해서
쳐보는 시간도 있었다. 그는 흥이 많았
고, K-POP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빅뱅 노래를 들어주었
고, 그는 춤을 추었다. 그가 춤추고, 우리
도 춤추며...





“두유 원투 플레이 풋볼?”

“예스, 고고고”

- .
- .
- .

“캔유 플레이 테니스 베리 웰?”

“예스, 아임 베리 웰”







‘우리집, 우리할머니’

“짱쩍이 너무 많아. 거미도 너무 많고, 내일은 대 청소하자”

“그래도 살만한 것 같고만”

“한국 가고싶다...”

“좋은데 앞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할머니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

.
.
.

“시간이 지날 수록 짱쩍이 익숙해 지는 것 같아. 한국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이 생각 안나.”

“나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많이 편한 것 같아.”

가리따스 깎달

가리따스는 1950년 로마교황 피오 7세에 의해 허가된 세계 각국의 가리따스로 이뤄진 연합체이다.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곳은 캄보디아 가리따스 깎달 지역으로 YDP와 CDP로 이루어진 직업훈련 유스센터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YDP와 CDP 활동을 함께 하며 배우고, 유스센터의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며 어울리고 있다.





‘병 어덤’S 뽀떼야

아띠들의 생활전반을 관리해주는 가리따스의 병 어덤. 누가 봐도 병 어덤의 딸인 병 어덤 판박이 4살 귀요미 ‘비사이’. 세상에서 가장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막내딸 ‘유비’. Dara(지환)가 하루에 한번은 꼭 챙겨먹는 병 어덤가게의 딱따꼬뜨꺼(연유커피). 물이 없으면 물을 사고, 모기향이 없으면 모기향을 사는 곳. 요리하기조차 지치고 힘들때 외식으로 먹는 미차(볶음라면)와 뽀로 핫(소시지, 어묵, 마늘종 튀김). 따끄돌에서 한달 간에 많은 순간을 함께한 곳.

*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뽀떼야: 집

아띠 '도 뿌어막



Neak(제민)의 뿌어막

우리집 할머니의 증손자 '김홍'(3세).

내(Neak)가 따끄돌에서 처음으로 사귀 친구.

이름이 너무 친근한 친구.

'킁킁'하는 웃음소리와 아장아장 뛰는 모습이 매력적인 아이.

병 어덤의 딸인 비싸이에게 매일 당하고 살아서 눈물이 참 많은 남자.

내가 보이면 이차(티처)라고 크게 부르며 반가워 하는 친구.

안기고 목마타는건 좋아하는데 높은건 무서워하는 이중적인 남자.

*뿌어막: 친한친구

Tida(다희)의 뽀어막

얼굴이 귀여운데 하는 행동도 넘나 귀여운
짱예 내 친구 'Dany'. 내가 중국어를 한다
니까 귀여운 표정으로 달려와 중국어 가르쳐
달라던 그녀. 그래서 함께 중국어 공부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슬픈 표정으로 나에게 와 중국
어 공부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 하는 그녀. 왜
냐는 질문에 3월까지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녀.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떠난다는 그녀의 말
에 좀 아쉬웠다. 더 친해져서 긴 시간을 함
게 하며 서로 깊은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는
데... 그래도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한 달이라는 시간자체가 중
요한 것 같다. 비록 지금은 옆에 없지만 앞으
로의 나의 기억에 친구로 남을 것 같다.





Saophea(주혜)의 뽀어막

웃는 모습만큼이나 친근감도 짙인 우리
'쓰라이 뽀벌'!

동네 아이들과 만나면 항상 “쑤어쓰
다이!”(안녕)인사를 하는데, “쑤어쓰
다이! 사오피아” 밝게 인사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쁜 아이다.

이름을 기억해 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
는 모습에 심쿵했다.

발음 서툰 크메르어로 “네악 쑤모 어
바이?(이름이 뭐니?) 물어보고 자기소
개를 하면서 친해지는데, 다른 아이들
보다 먼저 알아들어주고는 대답해준
뽀순이다.

Dara(지환)의 뽀어막

썩치을(socheat)

일요일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친해짐.

처음에는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말걸어서
짜증났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보니 마음이 깊고 착한
친구라 호전적으로 마음이 변함.

기타와 노래로 여자들 잘꼬시는 것 같음.
여동생이 예뻐.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집에 놀러가본 친구.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정말 풍경이 예
뻐다.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뷰를 가진

집에 살고 있다. 허름하고 낡았지만 그곳에
서 살고 싶다고 느낀 집에서 살고 있어서
부러웠다. 자주 놀러갈계획 ㅋㅋ



활동 (YDP, CDP) 리딩



YDP

YDP는 'Youth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로 가리따스 직업학교 유스들이 원하는 부분에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리따스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띠 클래스?, 아띠타임!’

“유스들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가르치는게 맞을까?”

“함께 어울리기 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러면 유스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라도 해볼까?”

“그러자, 우리 그럼 ‘클래스’가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타임’이라고 표현하는게 어때?”

-
-
-

“유스들이 진짜 많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맞아, 그리고 많은 유스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Atti Time(English)



우리 팀 네명 모두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어를 없애려고 했으나, 설문조사 결과 정말 많은 유스들이 영어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를 하기로 하고, Tida(다희)와 Saophea(주혜)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 우리는 유스들이 원하는 영어 시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한 결과 우리의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수업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팝송'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우리 팝송을 찾아볼까?”

“좋아 멜로디도 쉽고, 가사도 쉬운 팝송으로 찾아보자.”



“쑤어 쓰다이”

첫 영어 시간으로는 간단한 오티 시간 가지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게 다양한 게임을 했다. 첫 번째는 ‘바이싱숭(가위바위보)’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단어 4개를 적어서 서로 돌아가서면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 한 장에 이름을 쓰고 서로 돌아가면서 머리, 눈, 코, 입 등 그려주는 시간을 보냈다. 첫 시간은 친해지는 시간으로 보내고 영어 시간을 마쳤다.



Atti Time(Korean)



“첫 시간은 순우리말 이름을 유스들이랑 짓자”
 “짧고 굵게 해보자”



한국어 아띠타임은 Neak과 Daran가 진행하기로 했다.
 둘다 고민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 딱딱한 수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담없이 임하기로 했다. 간단한 한국어 단어 읽
 기와 기본적인 의사표현 알려주기를 목표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엇째크마에떼(크메르어못해요)’에 라는 말에 크게 웃으며 시작된 한국어 시간... 첫 시간부터 바로 자음/모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 주었다. 그리고 ‘가을’, ‘노을’, ‘다솜’과 같이 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이용해 유스들과 함께 이름 짓기를 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 이름의 뜻을 표현하고, 발음을 알려준 후, 각자가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여 이름을 짓는 시간을 가졌다. 발음을 어려워 했지만 많은 유스들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English

영어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부담으로 시작했지만, 유스들이 즐겁게 잘 해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장 아쉬운건 시간이 부족해서 영어를 크메르어로 바꾸지 못한 것이다. 첫 시간이라 가리따스 직원의 도움을 조금 받으려고 직원분이랑 함께 들어갔는데 그분이랑도 소통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할 시간을 직원분이 주도하게 돼서 어수선했던 것 같다.

그리고 첫 시간이라 그런지 부담되고 떨려서, 준비한 만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목소리도 작아지고 행동도 너무 작게해서 초반에는 진행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Korean

한국어 시간을 준비하면서 '같이 놀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그런지 우리말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단어마다의 크메르어 표현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러지 못해 우리말 단어 뜻을 알려주는데 애를 먹었다. 또 단어 발음을 알려줄 때 두 명이 동시에 알려주다 보니 유스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유스들이 참여해서 준비했던 단어들이 부족했는데, Tida와 Saophea의 빠른 대처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CDP

CDP는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알려주고, 유스들이 직접 그 기술을 실천하는 까리따스의 프로그램이다.

유스들과 아띠들의 밭 만들기



첫째날 '흙섞기'

“오늘 CDP 유스들이랑 뭐 한다고 했는데 뭐할까? 이때까지 하는게 없었는데 뭐 한다하니까 좋았어.”

“밭에 사용할 흙을 섞었던 것 같아.”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재미있었다.”

“근데 나 좀 잘 하는 것 같아.”

“그래 너 잘하네.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농부해라.”





둘째날 '울타리 만들기'

유스들과 함께 밭 만들기 두번째 시간. 울타리에 그물을 치고 밑으로 다른 동물들이 못 지나가게 그물이 땅에 밀착할 수 있도록 흙을 골고루 부어주는 일을 했다. 더운 날씨에도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힘이 났던 시간이었다. 유스들과도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만든 밭은 아띠들과 유스들이 함께 관리하게 될 곳이라는 가리따스 직원 번 맹의 말에 신이 나서 마무리 했다.





셋째날 '울타리 완성'

그물망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흙을 부은 다음 그물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기로 고정시켰다. 처음에는 막대기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다가 못도 박아보는 경험을 했다. 잘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됐다.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망치로 손가락을 쳐서 너무나 아팠다. 못을 다 박고 할 일이 끝난 다음 아띠들과 유스들이 관리할 발에 팻말을 만들기로 해서 설치까지 완료했으나 아직은 미완성...

유스센터 난간 페인팅

가리따스 쪽지를 미술 선생님이 페인팅을 유스들과 함께 하자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난간에 페인팅을 하는 것이어서 조금 실망... 페인트와 휘발유를 섞어 유스센터 난간을 까만색으로 칠하는 일을 유스들과 함께했다. 다 끝나고 휘발유로 손을 씻는 등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돼서 좋았다.



하이드로포닉(수경재배)



“주혜 진짜 열심히 한다. 돈 받는 줄...”

“농부와 한 컷”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프놈펜 화재현장 방문



가리따스 프놈펜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놈펜 화재현장 지원사업에 방문했다.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그곳의 주민들의 휴게공간이 될 평상을 나눠주는 일을 CDP 유스들과 함께 도와주었고, 가리따스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알게되었다.



CDP

까리따스 도착해서 많은 유스들을 만났다. 만나서 유스들에게 “썬어 쓰다이”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던 시기에 CDP유스들과 함께 밭을 만들게 되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농사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었지만,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조금 더 농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까리따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4월부터는 농장에 나가 농부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



생활
이
리

RaomAtti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00	기상					기상	
08:00~12:00	까리파스						
12:00~14:00	점심시간					자유시간	교회& 장보기
14:00~17:00	까리파스						
17:10~18:00	아미타임 (영어)	아미타임 (한국어)	아미타임 (영어)	아미타임 (한국어)	아미타임 (놀이)	쉬기	
18:00~19:45	저녁시간						
19:45~20:00	크메르어 시간						
20:00~20:15	청소시간						
20:15~10:00	쉬기						
10:00	회의						
12:00	잠						

비사이 생일파티



캄보디아 도착한 다음날 '벵 어덤'의 딸 '비사이'의 생일이였다. 당일 날 준비를 다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우리를 데리러 온 벵 어덤... 참 마음이 따듯해졌다. 낯선 환경에 와서 마음이 어렸던 찰나 생일 파티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시간 이였다. 이웃들이 웃어주며 "쫘무리읍 쑤어"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이웃들의 모습, 많이 먹으라며 음식을 더 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히하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이였다.

Dany 송별회

이곳에서 3월의 시작이 비싸이
 생일파티였다면, 3월 끝자락에는
 Dany의 송별회가 있었다.
 Dany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
 가리따스 유스센터의 학생이었고,
 지금은 가리따스의 직원이자 우리
 의 친구이다. 긴 시간을 함께 하
 지는 못했는데 3월을 끝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너무나 아쉽다.
 이날은 Dany의 송별회로 가리따
 스 직원분들과 아띠들이 함께 모
 여 숯불꼬치구이를 함께 굽고 먹으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성의 날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은 휴일이 관계로 가리따스에서 여성의 날 하루 전인 3월 7일 여성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선물로 가리따스 여성 직원 분들과 Tida(다희)와 Saophea(주혜)에게도 볼펜과 큰 담요를 포장해서 나눠주었다. 선물을 나눠 준 후 과자와 코카콜라를 함께 나눠먹는 시간을 보냈다. 여성의 날에 대해 알고만 있었지만(Neak은 몰랐지만...) 책임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유스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우리 맨날 이것만 고민하네 ㅋㅋ ”

“된장국?”

“아 그건 어제 먹었잖아.”

“우리 너무 잘 먹고 있는거 아냐?”

“아냐, 더 잘 먹어야지.”

“잘 먹어도 뭐가 아쉽다.”



MENU

미차(볶음 라면)



비빔면&뽕로 핫(소세지튀김)



고추장찌개 정식(밥, 감자볶음)



제육볶음 정식(밥, 진미채)



된장국 정식(밥, 진미채,
멸치볶음, 햄 버섯말이)



김치찌개 정식(밥, 진미채,
삼겹살, 김치전, 장아찌)



생선 구이 정식(밥, 콩나물국,
진미채, 멸치볶음, 장조림, 장아찌)



된장찌개 정식(밥, 진미채,
애호박전, 장조림)



MENU

소시지 구이 정식(밥, 진미채,
멸치볶음, 장아찌, 계란후라이)



라면 정식(밥, 장아찌)+쫄면



삼겹살 정식(밥, 된장국, 진미
채, 장아찌, 쌈무, 야채,)



감자국 정식(밥, 곁절이,
감자볶음, 김, 장아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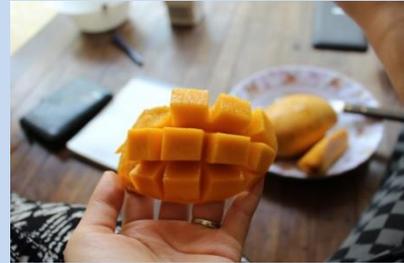


3

*모든 음식은 수제

*이웃과 감사님에게는 항상 무료!

망고



아띠브런치(망고, 식빵, 요플레, 잼)



아이스티 맥주



뜨뜨꼬뜨거(연유커피)



4

아띠시네마(3월 상영작)

Neak(제민)



우리는 일정이 끝나고 시간날 때 종종 같이 평상이나 거실에 모여 영화를 봤다. 외장하드에 넣어온 수십개의 영화중 내가 강력 추천해서 함께 보게 된 영화들. '어바웃타임'은 내가 살고있는 지금 시간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 영화이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주인공을 볼 수 있는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의뢰인의 사랑을 설계해주는 '연애조작단'을 다루고 있는 영화, 남자주인공의 찌질하지만 애뜻한 사랑이 공감되었다.

Dara(지화)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족히 5번 정도는 보았을 '맘마미아'... 몇 번을 보아도 아만다 사이프리의 눈에 빠져들어 보았던 것 같다. 앞으로 몇 번 이고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다. 형이 받아오지 않았으면 평생 보지 못했을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보았지만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주인공을 보며 안타까움의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Saophea(주혜)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있지만 함께 본 영화에 의미를 둔다면 이 두 영화를 뽑는다. 소개팅 상대가 바뀌는 사건으로 시작해 소개팅 남이 여주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이 서구 특유 개그코드와 센스로 돋보이는 영화 'Man up'. 서툰고 거친 스승과 제자가 만나 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인상스러웠던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

Tida(다희)



이 포스터의 '눈을 감아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 누군가는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다는 것... 이 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우리가 본 영화 중 첫 액션 영화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고 난 후도 계속 기억에 남는다.

아띠 살롱



‘소문난 아띠살롱’

미용사 자격증은 없지만 미용사 딸인 Tida와 미용에 관심이 많은 Saophea가 하는 살롱.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들...

Tida는 머리 자르는 것과 고데기 담당. Saophea는 눈썹 정리 담당.

훗놀이



“내일 점심은 누구지?”

“아 내가 연속으로 세 번이나 설거지야 ㅠ ㅠ”

“오늘 설거지는 훗놀이로 정하는건 어때?”

“쿨, 한 일주일치 정해놓자.”



프싸(시장)



‘시장에 가면’

처음 ‘따끄똥’에 도착했을 때는 장볼 때 마트로 갔다. 그러다 시장을 발견하게 되고,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후로 우리는 시장을 자주 이용했다. 일단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따끄마의 시장’, 거리가 조금 있는 ‘프놈펜 중앙시장’, 그리고 많은 옷들을 볼 수 있는 ‘똥똥똥 시장’ 등 근처에 있는 시장은 다 가보았다. 또한, ‘따끄마의 나이트마켓’에 가서 시장 음식도 먹었다. 지나가다 사탕수수 발견해서 사탕수수음료도 먹고, 개구리 구이도 있어 먹었다.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사고, 거의 모든 것들이 있는 시장. 파시는 분들이 친절해서 좋고, 물건들이 싸서 좋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다.

과일따기



“망고 먹자.”

“우리 망고 다 먹었어.”

“그럼 현지인 적응, 망고 따 먹자.”

.
. .

“아... 망고 말고 다른 과일 먹고 싶다.”

“까리따스에 코코넛 있던데 그거 따러 가자.”

“오늘 이거 다 못까면 저녁 못 먹는다.”

“좋아, 칼 줘봐 내가 해줄게. 나 좀 잘하는 듯”

“저녁 먹을 수 있겠네.”

In. 툽툽(Tuk Tuk)

툽툽(Tuk Tuk)은 오토바이에 승차공간을 결합한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우리의 주된 이동수단이다. 또한, Saophea(주혜)가 침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자는 곳이기도 하다. 프놈펜을 나갈 때는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흔들리는 먼지와 매연을 막기 위한 마스크가 필수인 곳이다.



프놈펜 한인교회



우리 팀에는 3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4명 모두 함께 하기 위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었다. 교회 밥은 참 맛있다.(Neak) 밥을 먹은 후, 그 곳에 있는 청년부들과 청년부 모임 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새 가족 잔치로 프놈펜 호텔에서 뷔페형식의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프놈펜 나들이



12일에는 아띠들끼리 프놈펜 나
들이에 나섰다. 한번쯤 가보고
싶던 쇼핑몰인 '이온몰'에 들렸지
만, 기대보다는 살 것이 없어
실망만을 남겨준 곳이다...



메콩 모앗뚜레(강변)

실망스런 이운물을 뒤로하고 우리는 왕궁이 있는 메콩강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의 하나인 왕궁. 안까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예쁜 캄보디아 왕궁에서의 석양은 일품이었다. 메콩강 주변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과 많은 승려들, 그리고 메콩강의 아름다운 경치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배고프다.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럼 이 근처 야시장 있던 것 같은데 야시장 가자.”

“아직 시장 음식 먹기 좀 그런데...”

.

.

.

“아까 시장 음식 먹기 좀 그렇다던 사람 누구야? 제일 많이 먹는데 ㅋㅋㅋㅋ”

개인의 에세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뜨겁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눈을 뜨면 눈 앞에 마주하는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낯선 날씨와 낯선 언어들...생소하지
만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갔다.

15기는 새롭지만, 아씨의 존재가 새롭지 않은 이웃들은 서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곤 한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 먼저 다가와 주는 이웃들이 고마
워서 또 웃음으로 화답한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따끄돌 주인이 되고 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애기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곳
에 오기 전에는 무언가 준비해야 할 것 같고,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부담 되었던 거
같다. 준비에 대한 부담과 무언가 가볍지 않은 마음을 팀원들이 눈치채고 부담 뒤에 숨어버린
나를 꺼내주었다.

미리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나가는 나와 달리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기는 팀원들과 함께 활
동하면서 우리는 달랐지만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울린다.

새로웠던 이 곳에서 함께인 우리가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고 감사한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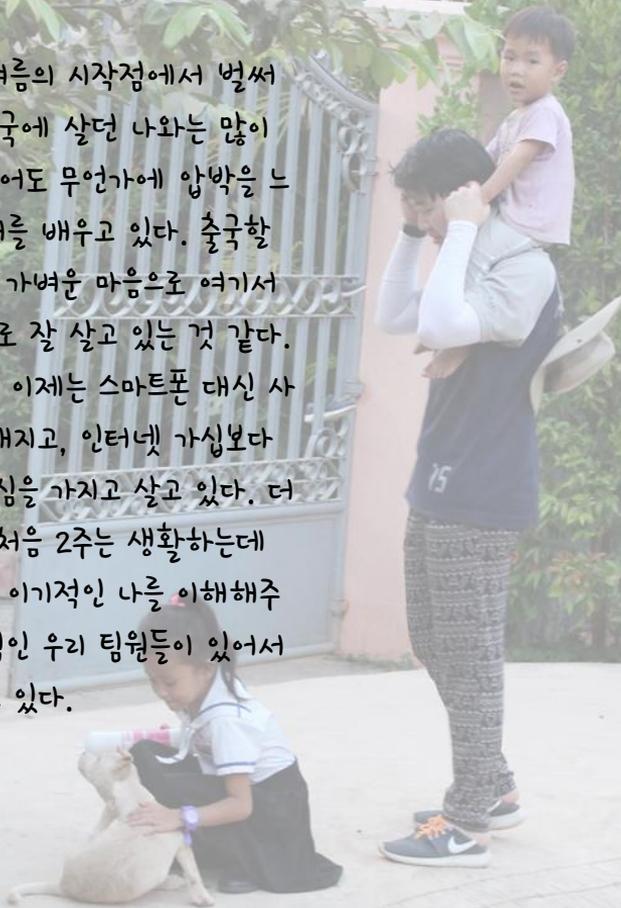
함께로 함께가 되는 지금, 이곳에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살아
가고 있다.

-Saophea(주혜)

따끄도에서의 1달. 내 생애 가장 긴 여름의 시작점에서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이곳에서의 나는 대한민국에 살던 나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무언가에 압박을 느끼며 살았던 내가 이곳에서 여유와 인내를 배우고 있다. 출국할 때 가지고 왔던 가벼운 캐리어 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서 지내려고 했었고,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tv를 달고 살던 내가 이제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인터넷 가십보다 여기 사는 이웃, 우리 팀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더운 걸 못 참고 매사에 부정적인 나머지 처음 2주는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넷 중에 가장 유치하고 이기적인 나를 이해해주고 유치한 농담에도 함께 웃어주는 긍정적인 우리 팀원들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고는 한다. 비교적 시원한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얼음장수의 오토바이와 아이스크림 파는 오토바이의 음악소리가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대낙엽도, 툭툭을 타고 지나가며 보이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내와 배려가 들어있는 거리의 모습도, 너무나 반갑게 웃어주고 함께 어울리는 유스들과 마을아이들도, 밝고 따뜻한 따끄도 이웃사람들도, 우리 가족같은 팀원들도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소중한 나의 '지금'이다. 15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다 지나가면 혹시나 소중한 '지금'들이 잊혀질까 매일매일 머릿속에 담아두려 노력한다.

-Neak(제민)





3월, 내 생애 가장 긴 여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간다는 걸 새삼 또 느끼는 요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묻으면 나는 당당하게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언어가 달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두려웠고, 낯선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그저 나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들이 참 좋다. 아이들과 놀 때는 나도 아이가 된 것처럼 신나서 논다. 매일 웃고 있는 지금이 난 그저 행복하다. 처음에는 정전이 되면 걱정부터 됐는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양초를 키는 나의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렇게 서서히 나의 일상이 되고 있다. 처음 한국에서 캄보디아 올 때 나의 목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달 지난 지금 느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난 그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주심에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가끔은 마음이 어려워 힘들 때도 있지만 곁에 팀원들이 있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파서 서럽지만 팀원들이 있어 아픔을 잊기도 한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요즘이다.

-Tida(다희)

“크메르어로 ‘초’(시간)는 뭐야?”

“음...초? 캄보디아에는 초라는 개념이 없어. Second(초)는 프랑스 식민지일 때 들어온 개념이야”

쑥치윌의 말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1초 1초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는, ‘초’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고작 비행기로 6시간 떨어진 이곳에는 ‘초’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시간에 우리 나라만큼 구속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서로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살아가는게 보였다.

한국에서 괴롭히던 몇 초 몇 초에 얽매어 살던 삶을 떨쳐버리고 이곳의 삶에 익숙해져 가니, 스스로 여유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았다.

이 곳에서 초에서 한 발 물러나 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아야 할 것 같다.

하루 한 캔...



칸 쫘 크니어 까엘 끄라오이 (다음 달에 만나요.)



편집: Neak(제민), Tida(다희) 3월호 END.